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 전주전시장 080-263-7743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6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136호 1판 (음력 10월 28일)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파국의 새정치…제1야당 쪼개지나

文 '마이웨이'에 주승용 최고위원직 사퇴…안철수 주말·호남 의원 다음주 수십명 탈당說 '일촉즉발'

당원들, 문재인 소환투표 청구
수도권 의원들 오늘 회동 예정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분열이라는 파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안 전 공동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에 대해 "총선을 앞둔 시기에 서로 대결하고 분열하는 전대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표는 이어 안 전 공동대표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안 전 공동대표는 우리 당을 만든 공동 창업주"라며 "요구가 안 받아들여졌다고 탈당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비주류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불안 때문에 탈당을 선택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탈당론은 저에 대한 압박용"이라며 일축했다. 문 대표는 오히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통합 및 연대를 위한 통합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하지만 당내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안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과 함께 비주류 진영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타난 문 대표의 발언은 당내 주류 진영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결국 나갈 사람은 나가라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에서는 안 전 대표의 주말 탈당설이 나오고 있다.

비주류 진영의 반격도 본격화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이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날 오전 수석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또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무 거부를 공식화하고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

이윤석 조직본부장, 김영록 대변인,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 등 호남지역 고위 당직자들도 사퇴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남지역 일부 의원들이 이달 중순 탈당에 나서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호남지역 당원들은 이날 문재인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청구했다.

비주류 의원모임인 '구당모임'도 이날 오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식회동을 갖고 문 대표의 사퇴와 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지도부 교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내 중진 의원들도 '현 체제로는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문 대표 사퇴론'이 확대되지 않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의원들이 9일 대규모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은 전체 의원 127명의 절반이 넘는 64명이나 되는데다 중립 성향이 상대적으로 많아 당내 내홍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표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은 결국 분당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새정치연합 내홍 사태가 차기 총선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퇴한 주승용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목타는 문재인 문재인 대표가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당 혁신안과 관련한 패널들의 질문을 받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2015 겨울愛' 꽃피는 온정

소방관이 그린 '연탄꽃'

박래균 작 '순이네 엄마'

화순소방서 '화가' 박래균씨 갤러리 '생각상자'서 전시회
수익금은 부상 소방관 돕기

밤하늘에 함박눈이 내린 듯 하얀 점들이 빼곡히 들어찬 검은색 바탕의 그림이 있다. 작품 한가운데에는 노란 꽃무늬가 예쁘게 장식된 빨간 접시가 있고 접시 속에는 연탄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연탄의 따뜻함과 포근함이 느껴지는 이 그림은 화순소방서 현장대응단 박래균(51·사진)씨의 작품이다.

박씨는 9~30일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소방관 아저씨가 그린 연탄꽃 이야기'를 주제로 세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의 수익금은 지난 8월 전신주 벌집제거 중 감전사고를 당한 노석훈(39) 소방장 가족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은 노 소방장은 현재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노 소방장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소방관으로서, 또 가족을 책임지는 같은 가장으로서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며 "미흡한 작품이지만 연탄처럼 따뜻한 온정이 전해져 부디 힘을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0월과 11월 두차례 개인전을 열면서 박씨는 정식 화가가 아니라는 생각에 작품을 판매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노 소방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약 70작품을 출품하며 자선 전시를 결심한 것이다.

공무원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그는 전시작에 "오늘같이 추운 밤엔/ 저 새까만 연탄들이/너희 엄마다" 등 직접 쓴 시도 적어 놓았다.

"약 20년 전부터 연탄을 소재로 종이에 그리기 시작했죠. 연탄을 택한 이유는 연탄과 소방관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얀 재만 남을 때까지 자기 몸을 태워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연탄을 통해 소방관의 희생정신을 표현하고 싶었죠."

그는 점점 각박해지는 우리 사회에 연탄의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었다. 몸과 마음의 추위를 연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녹여주고 싶다는 게 박씨의 소망이다. 〈2면으로 계속〉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양항 '동북아 자동차 환적 허브'로 키운다

해수부 계획, 10년간 25조 투입
배후산단 연 생산액 200兆 목표

광양항이 우리나라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으로 도약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과 산업의 연계 발전을 통해 광양항 배후산업단지 연간 생산액을 현재 100조원 대에서 2025년까지 200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2025년까지 투입될 예정인 25조5000억원의 예산 중 24조2000억원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해양수산부 8일 국무회의에서 '광양항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내년 개항 30주년을 맞는 광양항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벨기에 제브뤼헤항을 벤치마킹해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항이자 동북아시아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로 탈바꿈한다.

먼저 항만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양항 내 신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민간투자를 유치해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8.19㎢ 면적의 율촌매립지를 국가기간산업과 항만 물류기능이 융복합한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3.12㎢ 면적의 묘도 준설토 매립지에는 신성장산업단지가 들어선다. 내년에 착공해 2020년도부터 신소재 산업 등 미래먹거리 산업 등이 들어선다.

광양항 내 유휴항만시설의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낙포석유화학부두 등 노후화된 석유화학·제철산업 관련 물류시설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일부 컨테이너 부두를 자동차 전용부두로 전환해 광양항을 동북아의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자동차 전용부두 확보, 외국적선의 연안운송 허용 등을 통해 원활한 자동차 화물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자동차 부두 배후부지에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유치해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할 계획이다.

광양항에 대한 종합적인 항만서비스와 컨테이너 부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형선박 입출항 안전을 위해 항만 입구 암초 제거와 항로 준설을 추진하고,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수용을 위한 대형크레인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300만TEU 달성 시까지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를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항의 해상서비스 공급기지로서 여수신북항을 2020년까지 개발하고, 경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상업·주거·업무시설 도입이 가능한 광양항 2종 배후단지에 2016년부터 민간투자를 유치해나갈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대학가 학생회장 선거공약 ▶7면

한전 '빛가람 시대' 1년 ▶14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